



박·인·비

캘린더 그랜드슬램

힘찬 출발

사실상 첫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는 위업에 도전한 박인비(KB금융그룹)가 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올드 코스(파72·6872야드)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 페어웨이에서 아이언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FC 후반기 첫승 사냥

루이지뉴·루시오 '삼바 콤비' 내세워 4일 홈서 고양과 대결

달콤한 휴식기를 끝낸 광주 FC가 본격적인 순위싸움에 나선다. 광주 FC가 오는 4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고양 Hi F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18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잔인한 4월을 보냈던 광주는 전력의 안정화와 함께 최하위 8위에서 3위에 안착하며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상승세의 분위기와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후반기 첫 경기부터 치고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새로 꾸려진 '삼바 콤비'에 눈길이 쏠린다. 대구·울산·인천을 거처며 능력을 검증받은 루이지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에 합류하며 공격의 핵심인 루시오와 '삼바 콤비'를 구성했다.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시간이 부족했지만 경험과 능력이 있는 만큼 컨디션을 체크해 바로 실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코칭스태프의 생각이다.

여기에 물오른 박정민, 김은선, 김호남 등 토종 자원들의 골 감각이 광주의 공격력을 극대화한다. 광주는 최근 6경기서 4승1무1패, 10득점(4실점)했다. 반면 5연패에 빠진 고양은 지난 라운드 경찰과의 흥겨운

서는 0-8로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 고갈 속에 얇은 선수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고 누적이 고양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수비의 최병도와 신재필, 중원의 이현창, 공격의 알렉스 같은 주축 선수들이 경고 누적으로 땔 수 없다.

하지만 '한방'을 갖춘 노련한 골잡이 이광재가 전방에 버티고 있고 '에이스' 진창수의 침투와 슈팅은 여전히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어 광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번 경기 키프레이어는 매 경기 슈퍼 세이브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골키퍼 김지성이다. 내셔널 리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단 첫 해 수문장 자리를 꿰찬 김지성은 뛰어난 반사 신경과 예측 능력으로 팀의 가파른 상승세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리그 3위에 오르면서 리그 1, 2위인 경찰과 상주를 추격하고 있는 광주는 어느새 4위까지 바짝 따라온 안양의 집중 견제를 받는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김지성의 안정된 활약이 중요하다.

올 시즌 홈 2승에 그치고 있는 광주는 고양을 제물로 창단 첫 3연승과 홈 3승을 동시에 쟁기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세계 골프 역사상 최초의 '캘린더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순조롭게 스타트했다.

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올드 코스(파72·6672야드)에서 개막된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올해 메이저 대회 4연승을 노리는 박인비는 현지시간 오전 7시03분에 1번 홀(파4)을 출발했다.

박인비는 1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 더블 보기 1개를 기록하며 3언더파로 우승

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박인비는 1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 3~4m 거리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고 3번 홀(파4)에는 7m가 넘는 긴 거리의 버디를 뉘으며 패조의 샷 감각을 과시했다.

박인비는 이후 4번 홀(파4)과 6번(파4), 8번(파3) 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기록해 전반 9홀에서 버디만 5개를 쓸어들였다.

그러나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다. 10번 홀까지 6언더파를 기록했으나 13번홀과 17번 홀에서 보기, 16번홀에서는 더블 보기를 범

했다. 하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은 박인비는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3언더파로 끝내 2라운드를 기대케 했다.

총상금 173만3662 파운드(약 29억5000만원)가 걸린 이번 대회는 올해 열리는 5개 메이저 대회 가운데 4번째 대회다. 지난 시즌까지는 브리티시 여자오픈이 해마다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열렸지만 올해부터 9월 에비앙 마스터스가 메이저 대회로 승격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은 역시 박인비의 '캘린더 그랜드 슬램' 달성 여부다. 지금까지 한

해에 열린 메이저 4개 대회를 모두 우승한 예는 1930년 보비 존스(미국)가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가 출범하기 전이었고 브리티시오픈과 US오픈 외에 나머지 2개 대회는 아마추어 대회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값으로 치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메이저 대회 4연승을 기록했지만 한 해에 열린 메이저 4개를 모두 휩쓸지는 못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연합뉴스

미국 VS 세계 연합팀 대항 '프레지던트컵' 2015년 인천서 개최

미국 대표팀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연합팀 간의 남자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 대회'가 2015년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7413야드)에서 열린다.

팀 편성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커미셔너와 '골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73·미국)는 1일(한국시간) 월드 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짓스톤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피어스턴 골프장에서 2015년 프레지던트컵 개최지를 발표

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골프장만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으로 확정했다.

프레지던트컵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뷰어필드 빌리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등 2회 대회 연속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한 골프장에서 치러진다.

1994년 출범해 2년마다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은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과 쌍벽을 이루는 대륙별 대항전이다. 2000년까지 짝수해에 대회를 치르다가 2002년을 건너뛰고 2003년 재개해 이후 홀수해로 대회 개최 시기가 굳어졌다.

12명씩 이뤄진 양팀은 두 명씩 짝을 이뤄 각자의 성적 중 좋은 성적을 팀 점수로 삼는 포볼 매치 방식으로 우승을 가린다. 역대 9번의 대회에서 세계 연합팀이 1998

년 딱 한 번 이겼고, 7번은 미국팀에 우승컵이 돌아갔다.

2003년에는 동점을 이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2011년 대회에는 최경주(43·SK텔레콤), 김경태(27·신한금융그룹), 양용은(41·KB금융그룹) 등 한국선수 3명이 세계연합팀으로 출전해 쟁쟁한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기도 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은 2010년 10월 개최한 PGA 시니어 투어인 챔피언십 투어(2010~2011년), 한국여자오픈(2012~2013년), 신한동해오픈(2011~2012년) 등 굵직한 대회를 유치했다. /연합뉴스